

영암 미암 흑석산에 '기찬 자연휴양림' 만든다

70억 들여 46ha에 숲속의집·산책로·기 체험공간 조성 산림욕장·생태숲·사방댐 등과 연계 관광객 힐링 제공

영암군이 미암면 흑석산 일대 근유지에 기찬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이 곳에 이미 조성된 산림욕장, 생태숲 및 사방댐 등과 연계해 46ha의 산림에 70여억원을 들여 기찬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흑석산은 비가 온 후 물을 머금은 바위의 색깔이 유난히 곱게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은골, 장군바위 등 전설을 지닌 암석들이 등산로 옆에 있어 예부터 기가 충만한 산으로 유명하다.

1차 사업은 2021년 4월말 준공 예정인 체험활동지구로 쾌적한 산림자연 환경을 활용해 다양한 경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방문자센터(1동)와 다목적 광장, 피크닉장, 활기찬 숲(기 체험 및 치유공간)으로 꾸며진다.

2차 사업은 2022년 12월 말에 준공 목표인 휴양건강지구로 숲속의 집(10동), 숲속 산책로(500m)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휴양건강지구는 관광객들이 심신을 휴양하며 산림에 대한 조망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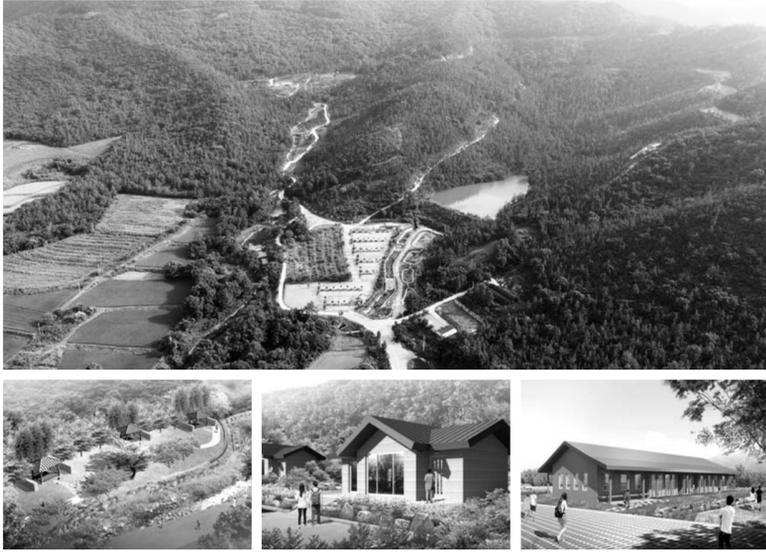
영암군은 흑석산 일대에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 계획을 장기 프로젝트로 세워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생태숲 조성, 동백·단풍·편백나무 등 자연경관 및 산림치유 수종 10만여 그루를 지속적으로 심었다.

2017년에는 '기찬 자연휴양림'을 지정·고시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제해 영향 검토, 환경영향평가,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산림 문화와 휴양, 체험을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게 됐다"며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관광객 유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암군이 미암면 흑석산 일대에 70여억원을 들여 기찬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아래 왼쪽부터 피크닉장, 방문자 센터, 숲속의 집. <영암군 제공>

한민족 위상 확립 공동 협력 장보고재단·세계한인무역협회 협약



세계한인무역협회·장보고글로벌재단은 26일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한민족 위상 확립 및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재외동포 후손들의 뿌리찾기 사업 ▲재외동포 차세대 역사교육 ▲월드속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민족 공동 사업 등에 대해 협력한다.

김택용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은 "한인 경제인들이 협약을 통해 '세계인 장보고 선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하길 바란다"면서 "장보고 유적답사 등 역사교육을 함께 진행하면 한민족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이 최근 망운면 조금나무에서 현경면 봉오제까지 총 8.9km의 해안관광일주도로 '노을길'을 개통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해안관광일주도로 '노을길' 개통

천혜 갯벌·해송숲 어우러진 8.9km

무안군은 국비 154억원을 지원받아 무안해안관광일주도로 '노을길' 개설 공사를 5년만에 마치고 최근 개통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을길'은 도로폭 6·8m로 망운면 조금나무에서 현경면 봉오제까지 총 8.9km이다. 차도와 보도 6km, 보행자 전용도로 3km, 주차장 3개소가 설치돼 있다. 공간별로 만남의 길, 자연행복 길, 노을 머뭇길, 느리게 걷는길로 구성돼 있다.

특히 탄도만이 갖고 있는 천혜의 갯벌, 모래 해안과 송림숲, 노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조성된 첫 번째 도로로 '무안 해안관광일주도로 황토갯길 600리 그 첫 번째 길 Slow 1 노림행복 노을길'을 테마로 하고 있다.

무안군은 후속연계 사업으로 송림숲을 중심으로

한 '노을길' 관광테마공원과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낙지전망대, 수변데크, 산책로, 가로수 길, 공원, 쉼터 등 편의 시설과 체험시설이 설치돼 새로운 해안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비대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나홀로 징검다리 쉼터, 가족 해수욕장, 나만의 찜질수, 미니 캠핑장, 사색의 숲, 노을 포토존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공항, KTX, 고속도로 등을 통한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을 살려 '노을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마라톤 대회, 걷기 축제, E-모빌리티 대회 등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한 행사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돈 버는 노인일자리 "좋아요"

해남 땅끝시니어클럽 '미남반찬' 인기 통발 제작, 김·부각 사업도 수익 창출

"노인 일자리가 퍼주더라고요? 천만에요. 돈 버는 사업이에요."

올해 68세 된 박종업 할머니는 매일 출근해 3시간씩 일을 한다. 할머니가 향하는 곳은 해남읍 구교리의 반찬가게다. 지난해 발족한 땅끝해남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사업으로 발굴한 노인일자리 '미남반찬' 사업장이다.

지난 6월 문을 연 미남반찬은 20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25종류의 김치와 반찬, 전 등을 매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고 어머니 손맛이 살아있는 '집반찬'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70~80여명이 찾는 정도로 인기가 높다.

아파트 상가 내에 자리를 잡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층 공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실제 '미남반찬'이 호응을 얻고 소득을 창출하며 참여 어르신들은 1인당 사업비에 인센티브까지 더해 최고 7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땅끝시니어클럽을 발족, 11개 사업단에 305명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땅끝시니어클럽 운영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익형 단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탈피해 생



땅끝해남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남반찬'이 소득 창출을 이끌어내 각광을 받고 있다. 미남반찬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선보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득 창출이 가능한 시장형 사업이 최근 성과를 거두며 호응을 얻고 있다.

땅끝시니어클럽에서는 '미남반찬' 외에도 어망 제조업체와 연계해 '통발 제작'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만간 '김·부각' 사업도 개시할 계획이다.

장진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 직원은 "참여 어르신들에게도 단순 일자리 사업이 아닌 자신의 특기를 살린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일자리 사업 급여 35

만원 외에도 운영 수익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정도로 어르신 소득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해남군 인구의 31%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는 해남군 복지시책의 핵심"이라며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세계안과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